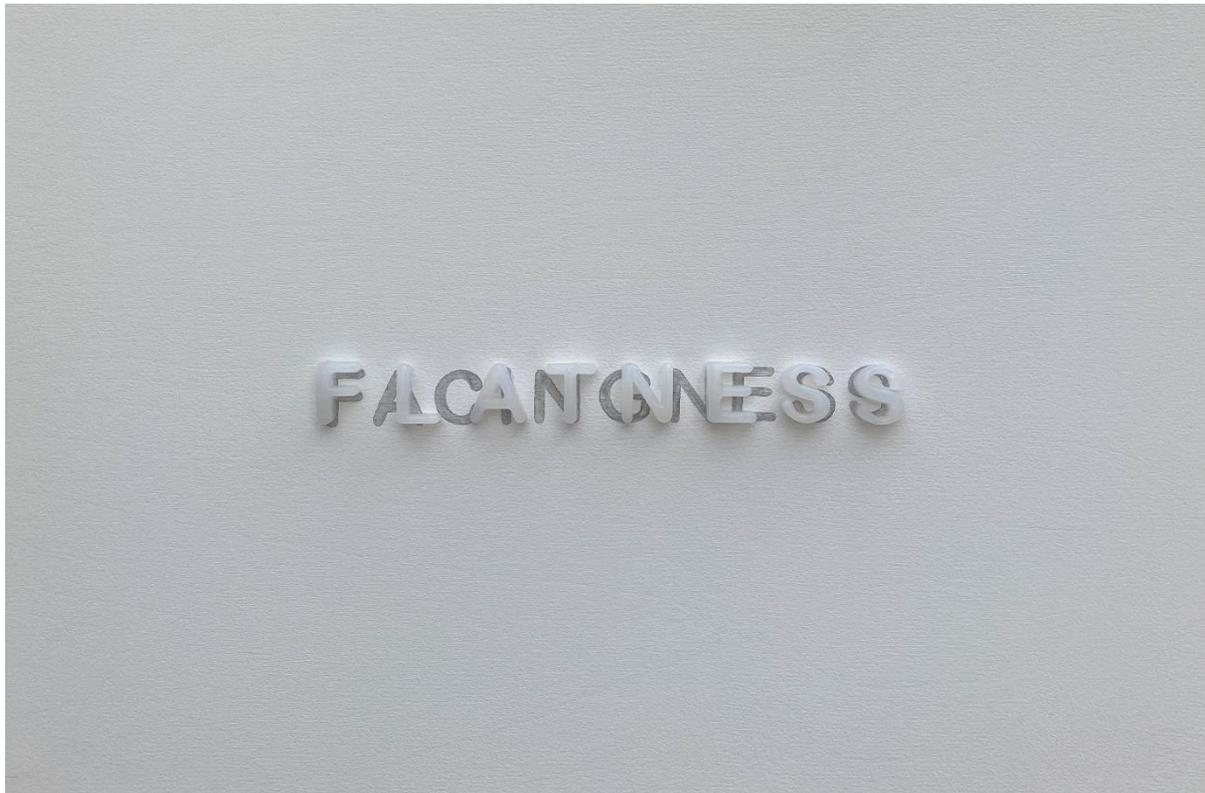


로와정 개인전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로와정, <undecidable>, 2024, 나무에 수채, 실리콘, 30.6x45.6cm.

전시제목 :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전시기간 : 2024년 6월 5일(수) – 2024년 7월 6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름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설치 총 19 점

○ 담 당 이소정 sojeong@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40605-20240706_로와정,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1. 기획 의도

학고재는 한국 현대미술의 젊은 에너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로와정 작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미술사에 개념미술의 전통은 오래다. 미국에서 개념미술이 1960년대 시작되었다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도 개념미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도입하였다. 그 후 다수의 작가가 성과를 냈다. 김구림(1936-) · 주재환(1941) · 성능경(1944-) 등 쟁쟁한 작가가 개념미술의 토대를 닦았고, 박이소(1957-2004) · 김홍석(1964-) 작가는 포스트모던 시기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념미술을 심화시켰다. 개념미술의 전통에서 삶의 상식을 뒤엎는 발상으로 세계적 호응을 얻은 김범(1963-) 역시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후 로와정(1981-)은 백정기(1981-) 등과 함께 개념주의 전통에서 신진 개념미술가로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미래에 회자될 만한 성과를 지속하여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다.

개념미술은 현대미술에서도 상식과 관습을 깨는 진보적 발상으로 미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신진 작가가 기존의 문맥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때, 그 문화 토대는 더 확장되며 탄탄해진다. 2024년 학고재가 로와정의 예술세계를 전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미술의 미래를 예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전시 개요

로와정(RohwaJeong)은 노윤희(1981-)와 정현석(1981-)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컬렉티브의 명칭이다. 로와정은 불과 20대 중반인 2007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사유로 미술계의 주목을 이끌었다. 국내외 주요 공간에서 개인전을 통해 호평을 받아왔다. 그들의 작품은 주제나 형식이 반복되지 않고 거의 모든 작품이 새롭게 펼쳐진다. 로와정은 무한한 지평을 달리는 수평적 사유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홀(David L. Hall)은 『중용(中庸)』을 '일상적인 것의 초점(focusing the familiar)'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다. 그간 '심리적 평형'이나 '중도'라는 관점으로 보았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탁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로와정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난해하고 건조한 개념미술을 생생하게 살아서 숨 쉬는 시학으로 승격시킨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실재와 이미지(가상)의 철학적 구분을 무효화시키며 언어와 사물의 상하, 전후 관계를 뒤집는다.

속옷 두 벌을 교차하여 안으로부터 조명을 비추어 벌을 만들어 <밤마다 행복했으면>(2010)이라는 제목을 부여한 작품, 집안의 모든 일상 사물을 원형으로 배치한 후 조명의 빛을 마스크테이프로

형상화하여 다시 원뿔형으로 연결한 <생활의 발견>(2010), 오래 써 흠집이 난 도마에 안녕을 고하며 'bye - bye'라는 두 단어를 새긴 <Bye - Bye>(2014), 인쇄물 곳곳에서 수집한 나무가 있는 사진(이미지)에서 나무를 도려내고 그 위에 실재 나무 모양을 일으켜 세운 작품, 관객에게 이미지와 사물의 위계(位階)를 재고하게 한 <Souvenir of somewhere (tree)> (2013) 등 대부분의 작품이 일반 관람객과 미술 전문가 모두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놀랍게도 18년 동안 쉼 없이 활동했음에도 작가의 새롭고 명료한 아이디어와 청신하고 깊은 시적 감수성이 마르지 않고 솟아난다.

작가는 동서고금의 구분 없이 철학, 언어학, 역사, 예술, 문학, 매체학, 미술사를 쉼 없이 연구하며 작품에 반영한다. 이번 학고재의 전시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이다. 눈길은 '눈이 쌓인 길(snowy road)'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선과 관심(eyes, attention)'이라는 뜻도 있다. 지나치는 일상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도 훈련과 공부를 통하여 쌓이며(깊어지며), 그렇게 쌓인(깊어진) 시적 사유야말로 예술의 샘(origin, 根源)이라는 것이다. 진정성(authenticity)을 뜻하는 독일어 'Eigentlichkeit'의 어원 역시 소유한다는(eigen, own) 뜻을 지니지만 눈길(Augen)의 소유와 연관성이 있다. 로와정이 추구하는 길은 예술에 대한 진정한 마음에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는 <imago>는 출처와 재료를 알 수 없는 기념품에 '이것은 공상적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This was inspired by an imaginary story)'라는 문구를 써 완성했다. 모든 사물을 비추는 카메라 렌즈를 연상시키면서도 때로는 모든 이미지를 삼키는 깊은 우물이나 세숫대야를 떠올리게 한다. 이미지를 뜻하는 라틴어 'imago'는 많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모든 상상과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동시에 미지에 갇힌 공간이다. <undecidable>은 언어의 위상을 도치한다. '평면성'을 뜻하는 영단어 'flatness'는 실리콘으로 입체화시켰으며, 외장(外裝)·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대면(對面)을 뜻하는 'facing'에 명사형 어미 '-ness'를 붙인 'facingness'라는 미술학 용어는 오히려 인쇄하여 평면화한다. 회화(그림)의 본질은 대면이라는 인간의 행위와 평면이라는 물리적 조건에 있다. 작가는 변치 않는 영원한 본질을 통찰력 있게 관찰한다.

이 작품들 외에도 지적 유머와 탄성이 절로 나올 법한 작품이 다수 출품된다. 작가는 그간 국내는 물론 프랑스·독일·덴마크·중국·대만 주요 미술관의 관심을 받아 초대되었다. 이번 학고재에서의 개인전은 11 번째이다.

3. 작품 소개



〈2184〉

2024

아크릴에 UV 인쇄

57x45x3cm

작가는 서기 2184년의 달력을 컴퓨터로 계산한다. 그레고리력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가는 여기에 세포 이미지를 투명한 아크릴로 중첩하여 몽타주로 만들었다. 앞으로 160년 후인 2184년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먼 이후를 가리키고 있는 이 달력은 12장이 포개어져 있어 제대로 숫자를 알아볼 수 없다. 그때 개천절·제천절·어린이날 등 문화적 기호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실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달력의 시간은 많은 오류를 지니며 진리로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 삶에 진리처럼 작용한다. 작가는 모든 숫자를 포개어 읽을 수 없게 만들어서 달력(문화와 제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처럼 작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애매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커튼〉

2024

커튼에 아크릴릭

250x160cm

푸른 쪽빛의 커튼이 봉에 매달려 있다. 커튼 중간이 말려있는데 말린 부분 아래로 무언가 글자가 있다. 작가는 의미심장한 글자를 스텐실 기법으로 찍어내었다. "땅에 발을 딛고도 매달려 있는 기분입니까?"라고 쓰여있다. 커튼 아랫부분은 실제로 땅에 닿아 있다. 커튼 윗부분은 철봉에 매달려 있다. "땅에 발을 딛고도 매달려 있는 기분입니까?"라는 질문을 상기해 볼 때, 커튼 입장에서 질문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작가는 언어와 이미지의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언어체계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오해를 거듭하며 사실도 왜곡하고 만다. 언어는 진리의 그릇이라는 유명한 테제가 있거니와 언어는 폭력의 무기라는 말도 있다. 언어에 관한 진정한 성찰에서 문화의 건전한 힘이 나온다.



〈salt of the earth〉

2024

회전모터, 알루미늄 파이프, 소금,
빗자루, 타이머, 합판
가변 크기

모터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달고 다시 파이프 끝에 빗자루를 매달았다. 모터가 회전하면 빗자루도 동그렇게 돈다. 또 하나는 수직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소금이 조금씩 떨어진다. 이 소금을 수평 모터의 빛이 돌면서 동글게 쓸어간다. 소금이 빛에 쓸리면서 흰색의 원형 이미지를 생산한다.

작가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소금이 떨어지고 쓸리는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변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과정이 결과이고 결과도 과정이 되는 순간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반영한 작업이다.



〈undecidable〉

2024

나무에 수채, 실리콘
30.6x45.6cm

〈undecidable〉은 언어의 위상을 도치한다. '평면성'을 뜻하는 영단어 'flatness'는 실리콘으로 입체화시켰으며, 외장(外裝)·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대면(對面)을 뜻하는 'facing'에 명사형 어미 '-ness'를 붙인 'facingness'라는 미술학 용어는 오히려 인쇄하여 평면화한다. 회화(그림)의 본질은 대면이라는 인간의 행위와 평면이라는 물리적 조건에 있다. 이처럼 작가는 변치 않는 영원한 본질을 통찰력 있게 관찰한다. 작가는 '대면성(facingness)'과 '평면성(flatness)'의 모순적 상태의 충돌을 현시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딜레마를 상기시킨다.

4. 작가 소개

로와정(노윤희, 정현석)은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입체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에이라운지》(202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2019, 2018), 《아마도예술공간》(2016), 《스페이스 비엠》(2015) 등에서 개인전을 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자연 사람: 프레질 + 트루 블루》(2023,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포트레이트 오브》(2023,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매뉴얼》(2022,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서울), 《콰이어트》(202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모두의 소장품》(2020,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모티프》(2018, 학고재, 서울), 《레슨 0》(201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등이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체 시 글쓰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구나연 | 미술비평가

학고재의 로와정 개인전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는 이미지에 대한 그의 오랜 사유가 담겨 있다. 이것은 특정 이미지를 맥락화 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요소와 텍스트의 요소를 동시에 발화할 때, 언어와 세계 사이에서 유실된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이미지성'에 관한 것이다.

입구에서 제일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2184>는 2184 년의 달력과 세포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중첩하여 몽타주 한 작업이다.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달력의 시간은 수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고, 그 어긋남의 축적은 무엇도 확언할 수 없는 양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되는 확언으로 우리를 이끈다. 로와정은 모든 인간에게 진리만큼이나 강력히 적용되는 어휘마저 그저 진리를 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투명하게 겹쳐져 알아볼 수 없는 숫자의 이미지로 드러낸다. 그 대신 달력에는 의례 붙어 있기 마련인 위편의 '보기 좋은 이미지' 자리에, 분열하고 변이하며 연결되고 통합될 때만이 생동할 수 있는 세포 이미지들의 몽타주가 있다. 그리고 언어라는 특권 없이, 미시적 생명의 단위인 세포의 유기체적 세계가 2184 년이라 불릴 그때 그날의 풍경에 관한 정확한 예감이 된다.

한편 이미지가 된 텍스트는 직접적인 독해에 노출되어 고정된 의미로 가두어진 석회화의 위험을 갖는다. 텍스트가 이미지로 온전히 발현되고, 이미지가 텍스트로 유연히 발화될 때 이미지성은 위계 없는 관념과 결행하고, 경계 없는 메타포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커튼>은 텍스트를 둘러싼 의미의 망을 주름으로 대체하여 기표에 잠재하는 이미지를 외양화 한다.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주름인 <커튼>은 그 자체의 사물성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지시하면서도, 결코 맞아떨어질 수 없는 무한한 언어의 퍼즐을 갖게 된다. 언어가 지닌 의미의 망을 그대로 지닌 채 텍스트의 형태가 이미지로 탈바꿈되는 것은, 언어의 고정된 의미와 더불어 자유로운 이미지의 가역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일이다. 로와정의 작업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수많은 우연성과 그 변이들의 결과이며, 이렇게 도출된 잠정적인 결과가 '이미지성'의 새로운 메타포가 되지만 이는 재차 새로운 변이로 이행될 준비를 한다. 이 과정은 인과나 위계가 아닌 일종의 자기의 배치와 자기의 극복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렇게 인과나 선후가 없이 포용되는 대응의 구조는 <untitled(19May2024)>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 구축주의의 엄밀한 구조적 매커니즘과 연계하며 제작된 이 작품은 구조물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위한 지지대이자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순환적 일원화의 구조는 양립불가능한 개별과 보편의 공존과 같은 이상적이며 역설적인 존재의 메타포를 구축한다. 자아의 치밀한 논리와 타자의 예리한 반론, 그리고 자유와 구속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상태는 "공동의 위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때 가능하며, 영상의 구조물 혹은 구조물의 영상은 각기 다른 존재 이유를 지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자아의 반영과 은밀한 연대성을 통해 세워진다. 이것은 이를테면 '눈길(gaze)'의 두께와 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확고한 연대이면서 서로에게 현혹되지 않는 공동의 우연성을 통해 더듬어가는 메타포들로 볼 수 있다. 언어를 필요로 하면서도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러한 이미지성은 마치 '눈길(snowy road)'과 같이, 풍경을 하얗게 덮어 눈부시면서도 그 아래 모든 것을 가린 것이기도 하다. 모자처럼 보이는 하얀 그것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품은 것일지 모르는 것처럼. 로와정의 작업은 언어를 이미지의 표면으로 이전시킬 때, 또 이미지를 언어의 마술로 끌어들이는 때 발견되는 수많은 메타포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로와정이라는 기표에 관한 어떤 아이러니가 된다.

6. 작가 약력

로와정

1981 서울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학력

2006 정현석,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입체미술학과 졸업

2005 노윤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입체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4 **눈길에도 두께와 밀도가 있다, 학고재, 서울**

2020 rrrr, 에이라운지, 서울

2019 윌링앤딜링 오픈 프로젝트 바이 로와정,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8 선데이 이즈 먼데이, 먼데이 이즈 선데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6 프린지드 위드 조이,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5 리브 앤 렛 리브, 스페이스 비엠, 서울

2014 그 정도 거리, 갤러리 팩토리, 서울

리턴 트립, 갤러리 도향리, 파리, 프랑스

2010 서교예술실험센터 아카이브룸 오픈닝 초대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09 로와정 개인전 및 섬머 페스티벌, 쿤스틀러하우스 솔로스 발모랄, 바트엠스, 독일

2008 별책부록, 갤러리 라이트박스, 서울

2 인용 1 인실(이머징 8), 쌈지스페이스, 서울

2007 더 키 인 어 수트케이스, 진흥아트홀, 서울

주요 단체전

2023 자연 사람: 프레질+트루 블루,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포트레이트 오브,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내 책상 위의 천사, 팩토리 2, 서울

2022 매뉴얼,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서울

몸짓하는 표면들, 피비갤러리, 서울

나의 잠,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21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 KF 갤러리, 서울

매니폴드: 사용법, 한가람미술관, 서울

-
- 2020 오르 영생 앤 미르, 갤러리 도향리, 파리, 프랑스
꿈의 대화, 온라인 VR
궤도공명, 스페이스 이수, 서울
대기실 프로젝트: 전혀 예술적인, 영성한 미술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콰이어트,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마침표와 불임표 사이, 오래된 집, 서울
아나모르포즈 : 그릴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웨스, 서울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9 마이너스 아워즈, 우민아트센터, 청주
시노그래픽 이미지네이션, 베이징 코뮌, 베이징, 중국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 쿤스트할 니콜라이, 코펜하겐, 덴마크
기하학 단순함 너머, 뮤지엄 산, 원주
 - 2018 월 유 비 데어?, 프로젝트 풀필 아트센터, 타이베이, 대만
모티프, 학고재, 서울
제 12 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르땅데뽀, Été 78, 익셀, 벨기에
스틸 라이프, 갤러리 도향리, 파리, 프랑스
 - 2017 레슨 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투 교토, 소넨안, 교토, 일본
딩스 오브 팩토리, 갤러리 팩토리, 서울
 - 2016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투 서울, 갤러리 팩토리, 서울
다음 곡을 준비하는 양상블, 누크갤러리, 서울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네오-에덴, 쑤저우 진지 레이크 아트 뮤지엄, 쑤저우, 중국
더 땡 댓 유 노우, 아이 두 낫 원트 투 노우, 라 꿈빠니, 마르세유, 프랑스
뮤제 - 뮤즈, 갤러리 도향리, 파리, 프랑스
구사구용,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5 중성적 시대, 보안여관, 서울
온 더 웨이 투 레드, 북경복장학원, 베이징, 중국
그때 그 일을 말하자면, 난지 전시관, 서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하이트 컬렉션, 서울
사색적 먼지,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북극의 개념: 정신분열증적 지리학,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구인전, 갤러리 분도, 대구

-
- 2014 아티언스 오픈 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가면의 고백,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6-8, 아트선재센터, 서울
미래가 끝났을 때, 하이트 컬렉션, 서울
 - 2013 노 원 리버 플로우스, 관두 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생명은 아름답다, 카이스트, 대전
예의를 잃지 맙시다, 하이트 컬렉션, 서울
Ex, 국경 없는 미술공간, 파리, 프랑스
 - 2012 워크 아웃, 솔로스 플뤼쇼브, 플뤼쇼브, 독일
웃, 이화아트센터, 서울
망망대해 - 덩고스, 동덕아트센터, 서울
 - 2011 빙 워드 유 - 덩고스, 갤러리 비 하이브, 서울
손 없는날 - 덩고스, 류화량, 서울
 - 2010 자이트글라이히, 베르크슈타트 갤러리 20, 베를린, 독일
감각의 확장: 대안공간 루프 & ICC 미디어 아트 교류전, 송원아트센터, 서울
인천 국제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2010, 송도 투모로우시티, 인천
발모랄 블렌드, 아르프 미술관, 레마겐, 독일
조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문지방, 디방, 서울
지역네트워크: 디센터드,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 부산
 - 2009 제 1 회 아르코 지역 네트워크전: 디센터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홍 벨트 페스티벌 '타이틀매치_이중적 감성', 갤러리 킹, 서울
홈&어웨이,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 2008 인트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쌘지 스페이스 1998-2008, 쌘지스페이스, 서울
패션쇼, 모란 미술관, 남양주
미디어,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 2022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주
- 2018 명륜동 작업실, 캔 파운데이션, 서울
- 2017 헬싱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프로그램, 헬싱키, 핀란드
- 2015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9 기, 서울
- 2013 금천예술공장 5 기, 서울

-
- 2012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프랑스
 - 2010 솔로스 플뤼쇼브, 플뤼쇼브, 독일
 - 2009 쿤스틀러하우스 솔로스 발모랄, 바트엠스, 독일
 - 2008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울산시립미술관, 울산